

기로에 선 평전출판, 출판계 새로운 기류로 자리 잡아야

《조영래 평전》으로 촉발된 평전출판에 대한 논란
인물과 시대를 읽는 통찰력 넘치는 안목 필요

한 인터넷서점 검색창에 ‘평전’이라고 치면 곧이어 210여 권의 책목록이 쏟아져 나온다. 전태일·문익환·함석헌·천경자·체 게바라·덩샤오핑·간디·모차르트 등 낯익은 국내의 인물이 있는가 하면, 암베드카르·야나기 무네요시·에리히 케스트너 등 언뜻 들어선 낯설다 싶은 이름도 많다. 우선 생각하기엔 인류 역사에 긍정적 영향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 인물들이 ‘평전감’이 될 것 같지만, 이완용·히틀러 같이 그렇지 못한 인물들도 평전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2000년 실천문학사의 《체 게바라 평전》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면서 우후죽순처럼 출간되기 시작한 평전출판은 이제 우리 출판가의 한 지류로 자리잡은 모습이다. 한 문학평론가는 “평전은 한 인물을 통해 시대를 읽어낸다는 점에서 역사를 읽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익하다”면서 “최근 외국인물과 더불어 국내 인물들의 평전이 출간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지난 1월 출간된 《조영래 평전》을 두고 “고인의 사상과 인물됨을 왜곡하고,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유족 측과 “평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썼기 때문에 내용에 자신이 있다”는 저자가 참여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우리 평전 저술문화도 달라져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한겨레신문>은 이를 두고 “평전이, 그것도 거의 가뭄에 콩나듯 했던 국내 인물을 국내 지은이가 쓴 평전이 출판계 뉴스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이번 소식은 안타까우면서도 눈길을 끈다. 그만큼 지금까지 우리 독서계에서 평전은 자리 잡지 못한 장르였다”고 일침을 가했다.

성숙한 평전출판 문화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록문

화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게 출판전문가들의 하나같은 지적이다. 《심산 김창숙 평전》을 쓴 김삼웅 독립기념관장 역시 책 서두에 “거인의 모습을 어찌 둔탁한 붓으로 그릴 수 있을까, 설혹 면상은 그린다 쳐도 골상과 심상을 제대로 그려 낼 수 있을까. 망설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다행히 심산 정신을 잇고자 하는 선학들의 연구 성과가 적지 않아서 큰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선학들이 남긴 연구결과물이 없었다면 자신의 평전도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한편 저자 자신의 철저한 자료조사와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사람의 행적만을 시대별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적은 물론 시대와의 연관성을 통찰력있는 눈으로 제시하는 쉽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외국 전기작가들 사이에서는 평전 준비 기간만 ‘기본 10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고(故) 조영래 변호사의 유족들이 《조영래 평전》의 저자에게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 출판계 안팎에선 책 한 권의 찬반논의나 평전출판의 허와 실에 대한 논의에 매몰되기보다 앞으로 우리 출판계가 지향해야 하는 평전출판 문화의 좌표를 가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출판저널>은 ‘역사인물찾기’ 시리즈를 통해 우리에게 친근한, 혹은 낯선 인물들의 면면을 새롭게 알린 평전출판으로 유명한 실천문학사 김영현 대표를 통해 평전출판의 기본적 덕목을, 그리고 KBS TV 문화전문기자로 활동하는 나신하 기자를 통해 평전출판이 지향해야 할 바를 모색해 본다. ■

취재_장동석 기자